

인생 선배가 들려주는 삶의 고백

어린 시절의 풍속사적 복원에서 시대사적 아픔 증언하는 회고담까지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원로들이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글을 펴내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 '머나먼 길을 돌아 이제는 거울 앞에 선' 이들의 내면고백인 《마지막 신라인 윤경렬》(학교재)과 《한강과 라인강 위에 무지개 다리를 놓다》(지식산업사), 《할배, 왜놈소는 조선소랑 우는 것도 다른강?》(돌베개)과 《인생, 나의 오십자술》(한길사), 그리고 《사색의 즐거움》(자작나무) 등이 그것.

이러한 회고록들은 연약한 육체와 황폐한 정신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인생선배들이 달여주는 '보약'이다. 그 속에는 신산했던 삶에서 길어올린 사색과 두터운 삶의 지혜가 가득 녹아 있다.

개인과 민족의 운명 증언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라는 북국(北國)을 고향으로 두었지만, 각각 경주 남산과 독일 마인츠시에 자리잡은 두 사람의 회고록이 먼저 눈길을 끈다. 《마지막 신라인 윤경렬》과 《한강과 라인강 위에 무지개 다리를 놓다》를 펴낸 윤경렬과 이수길 박사가 그들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과 개인으로서의 모진 삶을 증언하는 기록적인 가치가 빼어난 글들이다.

《마지막 신라인 윤경렬》은 함경북도 주에서 태어나 경주에서 풍속인형연구소 고청사(古靑舍)를 설립해 우리의 얼굴과 풍속을 인형으로 만들어온 윤경렬의 삶이 담겨 있다. '안창남의 비행기 업복동의 자전적'이라는 노래를 흥얼거리던 어린 시절부터 인형작가 수업을 거쳤던 일본 유학시절 이야기, 고유섭·석주명·진홍섭 선생 등을 만나 우리 전통문화를 새롭게 깨우쳐가던 시절 등이 짙은 문체 속에 그려진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와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더운 밥이 단 줄을 모르고 좋은 일에도 항시 가슴 한켠이 허전하며 슬픈 일에는 가슴이 미어져 잠 못 이루는 이산가족 1세대의 스산한 정서가 물씬 풍겨난다.

함경남도 풍산이 고향인 이수길 박사의 《한강과 라인강 위에 무지개 다리를 놓다》는 현재 독일 마인츠에서 소아과 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저자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거슬러가는 여행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원로들이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글을 펴내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회고록들은 연약한 육체와 황폐한 정신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인에게 인생선배가 달여주는 '보약'이다.

그 여행에서는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가 마비되어 절뚝거리는 식민지의 소년과 6·25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해 의사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청년 의사, 그리고 독일의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로서 입지를 굳혀가는 의지의 한국인을 만나게 된다. 동백림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의 증언은 현대사의 중요한 증언자료로서의 가치도 있다.

두 사람이 모두 북방의 실향민으로서 어린 시절을 회고하고 있는 반면 안재구 박사와 박한제 교수, 그리고 김영철 교수는 경남 밀양과 진양, 그리고 함양을 고향에 둔 남방민의 세속풍정과 지식인으로서의 성찰을 담고 있다. 북방을 고향에 둔 사람들처럼 실향의 아픔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어린 시절과 고향은 영원한 동경과 따뜻함을 담고 있는 이상향의 공간이다.

《할배, 왜놈소는 조선소랑 우는 것도 다른강?》을 펴낸 안재구 박사는 현재 대구교도소에 복역중이다.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미분기하학의 세계적인 수학자로서 알려져 있지만,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출감한 후 1994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시 구속되었다. 감옥에서 딸 소영에게 보낸 편지 70통을 모아 묶은 이 책은, 역사의 격랑에 휩쓸려 영어의 몸으로 찬 겨울을 맞고 있는 한 지식인이 바깥 세상을 향해 띄우는 서신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가 막바지 광란을 부리던 때 어린시절을 보낸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의 역사와 고향땅 밀양 이야기, 왜란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변방 민중과 지조 높은 선비들의 애국심, 그리고 험난한 시대를 헤



쳐온 자신의 가족사를 따뜻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고 있다. 연날리기, 쥐불놀이, 열발뛰기, 고누두기, 눈물에서 민물새우와 미꾸라지 잡기를 하며 놀았던 아이들이 일본 선생에게 반항하면서 조국의 의미를 깨우쳐가는 감동적인 모습이 눈물을 적시게 한다. 학술논문이 감당하지 못하는 1930~40년대의 거대한 풍속화가 담겨 있다.

지식인의 내면풍경 담아

안재구 박사가 현대사의 이태올로지적 풍난에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서 분단극복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곳곳에 복선으로 깔고 있다면, 박한제 교수의 《인생, 나의 오십자술》과 김영철 교수의 《사색의 즐거움》은 지식인의 개인사적이고 은밀한 내면풍경을 보여준다.

경상도 두메산골에서 태어나 서울대에서 중국사를 강의하며 반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박한제 교수는 '지천명(知天命)'의 오십갑과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절로 일이나 생각한 것들을 진솔하게 정리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 키가 작아 미녀 여선생님의 치마 밑을 감상하고, 생활고 때문에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기도 하며, 첫사랑의 이름을 딴 동회반점에서 가끔 자장면을 먹는 등 근엄해야 할 대학교수로서 차마 부끄러워 밝히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보인다.

원로 철학자인 김영철 교수(고려대)의 《사색의 즐거움》은 젊은 시절부터 대학강단에서 물러나기까지 여러 신문과 잡지에 실린

글을 묶었다. 꼬박 하루 남행열차를 타고 먼지 날리는 버스로 찾던 고향 경남 함양의 어린시절 추억과 고향산천의 모습, 중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던 이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우울했던 6·25전쟁기의 독서편력 등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뿐만 아니라 철학교수로서 한국의 철학교육의 부재와 황금만능세대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일상인으로서의 정직한 자아성찰과 학자적 풍모가 문장 곳곳에 배어난다.

진지한 내면성찰 권고

이러한 회고록들은 일제시대부터 해방과 민족분단을 거쳐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역사를 온몸으로 겪었던 우리 지식인들의 초상화다. 민족의 운명이 순탄치 않았던 만큼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야만 했던 지식인으로서의 삶은 역사의 행로와 비스한 궤적을 닮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글들을 통해 만나는 우리의 잃어버린 옛것과 할배·할배들의 생활상은 풍속사적인 가치도 지니고 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을 망각할 수 있는 찰나적인 쾌락에 몰두하거나 진지한 내면성찰을 통해 삶의 지혜와 통찰을 얻으려 한다. 인생선배들의 내면고백들은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낮은 목소리로 들려준다. 또한 그들이 보여주는 과거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 밝혀준다. — 박천홍 기자